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북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류 판매 가격과 수급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제공

강기정 광주시장, 중동사태 여파 주유소 현장점검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의 현장점검이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북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류 판매 가격과 수급현황을 직접 살폈다. 현장에서 경유·휘발유 판매가격 및 거래, 주유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석유판매업 합동 현장 확인 및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현장을 살펴본 뒤에 배정학 주유소 대표, 김홍균 한국석유유통협회 호남·충청지구회장, 성광호 한국석유관리원 광주전남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주유소 대표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르면 주유소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진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 전쟁 종식으로 하루 빨리 기름값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류 판매가격·수급현황 직접 살펴… 상시 모니터링 강화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격 안정·유통 질서 협조” 당부
광주시, 비상경제 대응TF 가동·석유판매업소 합동점검 시행

강 시장은 “기름값 상승은 비닐하우스 농가와 운송 종사자 등 시민들의 부담을 키우며 연쇄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대외 경제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인 만큼 업계의 자율적인 유통질서 준수와 가격안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애용하는 주유소로 알려진 만큼 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석유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석유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품질 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관리

로 시민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판매업소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시장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반은 ▲가짜석유 유통 ▲석유품질 저하 ▲가격표시제 위반 ▲혼합유 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주유소

별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가 변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전광훈 기자



영광군, 함평군, 부안군, 군산시, 고창군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은 최근 부안군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영광군제공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하라” 5개 시·군 협약 영광·함평·부안·고창·군산, 정책 건의 협력 강화

전남 영광군이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 철도 정책 반영을 위해 서해안권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광군은 함평군·전북 부안군·고창군·군산시 등 서해안권 5개 시·군이 최근 부안군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5개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서해안 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국가 철도 정책 반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정책적 당위성과 국가 철도 정책 대응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5개 시·군 공동 예산 편성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지자체들은 서해안 철도가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사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 건의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협의체도 열렸다.

협약서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국회 공동 방문, 경제성(B/C)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와 논리 개발 등이 담겼다.

앞서 5개 시·군은 지난해 9월 영광군에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두 번째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기동취재부

7월1일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비용절감·자체수입 확충안 시급

전남광주특별시가 7월1일 출범하는 가운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회의 ‘2026년도 본예산 기준 전남·광주 예산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규모는 전남 12조7023억원, 광주 8조1017억원이며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 20조8040억원이다.

또 공기입과 기금·교육청 등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남은 18조6163억원, 광주는 12조4548억원으로 총 31조711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 총액은 전남 10조4587억원, 광주 6조271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재원은 전남이 2조5741억원, 광주가 2조2235억원이지만 각각 비중이 24.6%, 35.46%를 차지했다. 광주가 지방세 기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 비중은 전남 71.9%, 광주 57.6%로 두 기관 모두 중앙정부 재원 의존도가 높았다. 통합특별시 기준으로도 보조금이 8조520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9%를 차지했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 전남광주 예산비교 분석
통합행정 예산 20조8040억원... 국비 의존도 높아

세출구조는 광주의 경우 46.9%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됐으며 교통분야가 10%인 도시형 예산 구조인 반면 전남은 농업해양수산 18.8%, 환경 8.6%, 공공질서·안전 7% 등의 비중이 높은 광역 행정형 구조다.

통합특별시로 분석하면 사회복지가 6조56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9.3%를 차지했으며 농업해양수산 2조324억원(12.1%), 일반공공행정 1조8142억원(10.8%), 환경 1조400억원(6.2%), 교통·물류 9617억원(5.7%), 공공질서 및 안전 8243억원(4.9%), 교육 7182억원(4.3%) 순이다.

전남의 예산이 광주보다 1.6배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23.4%로 광주 33.9%에 비해 낮으며 전남도와 광주시 모두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원으로 완화된다. 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AI) 산업 등 신산업 투자와 복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면 전남의 5년평균 예산 증가율은 2%이며, 광주는 2.8%로 파악됐다.

통합특별시 기준으로는 올해 21조5740억원에서 2030년 23조6621억원으로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토대로 전남과 광주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립권이 제한적임에 따라 통합 후에도 자체재원 비중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특별시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합 후 초기에는 인프라·디지털 전환·사회서비스 표준화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원 기자

제49회 보성 다향 대추제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

2026. 5. 1. (금) -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차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공연, 부대행사 등

제49회 보성군민의 날
5. 1. (금)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기념식, 군민의상 시상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2. (토) - 5. 4. (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민소리·고수 경연대회, 추모제

제22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2. (토) - 5. 4. (월)
용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2. (토)
보성공설운동장
출.차표, 10km, 5km

추천 영농조합법인보성차생산지협

주관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남도,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사